

AUTHOR PROFILE · SELECTED WORKS



소설가

최희

CHOI HEE

역사와 자연, 인간의 내면을 기록하는 소설가

기록의 숲 · LITERARY FOREST

PROFILE EDITION · 2026. 7

작가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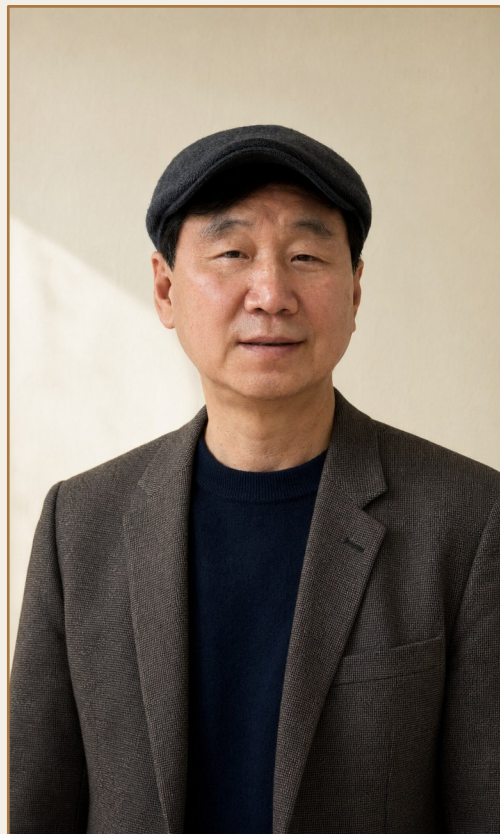
“ 삶의 자리에서 걸어 올린 경험을 ,
역사와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로 되돌려주는 작가 .”

최희는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소설가다 . 공직에서 일찍 명예퇴직한 뒤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전념해 왔다 .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을 통찰하는 시야를 넓혔으며 ,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역사와 자연 , 인간의 내면을 아우르는 작품을 집필하고 있다 .

그의 소설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상처와 기억으로 끌어오고 , 자연의 풍경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한다 . 공직 경험에서 얻은 현실 감각과 오랜 관찰이 작품의 뼈대를 이루며 , 삶의 질곡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놓지 않는 인물들에게 시선을 건넨다 .

ONE LINE

역사와 자연 , 인간의 내면을
기록하는 소설가



역사

공식 기록 너머에 남은 민초의 삶과
기억을 소설로 복원한다 .

자연

제주의 풍광과 생명을 인간의
정서와 서사의 상징으로 엮는다 .

인간

상처와 사랑 , 운명과 존엄을 통해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다 .

활동 기반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집필

주요 장르

장편소설 · 역사소설 · 인간 내면 서사

대표 저서

『세초 , 시린 바람을 씻다』 · 『동박새』 · 『쓰나미』

공개 활동

공직 이후 전업 창작 · 문학 연구와 출판 활동 · 시 발표

작가 소개



서재에서 — 최희 작가

최희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아 인간과 삶을 오래 관찰해 온 소설가다. 병무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뒤 공직에서 일찍 명예퇴직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에 전념했다. 행정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람과 삶의 표정은 그의 소설에 구체적인 현실감과 단단한 윤리적 질문을 더한다.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글을 쓰는 그는 지역의 풍경을 단순한 배경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제주의 바다와 숲은 사랑과 상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오래된 기록과 사라진 공간은 오늘을 되묻는 역사적 무대로 되살아난다.

그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보다 그 여파를 감당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둔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과 마음의 회복 가능성을 놓지 않는다.

“기록 밖의 인간과 오래 남는 마음을 소설로 전한다.”

작품 세계를 읽는 세 개의 문

01

기록 밖의 삶을 복원하는 역사

양조의 기록과 전쟁 같은 거대한 역사를, 그것을 지켜내고 견뎌야 했던 개인의 삶으로 번역한다.

02

감정을 품는 자연

바람과 바다, 새와 꽃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인물의 내면과 연결해 서사의 정서적 밀도를 높인다.

03

상처 이후의 인간

상실과 질병, 기억의 파고 속에서도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끈질기게 묻는다.

POSITIONING

현실의 경험으로 역사 · 자연 · 인간의 내면을 한 서사 안에 직조하는 소설가

이력과 문학의 여정

● 성장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

● 수학

충남고등학교 · 명지전문대학 영어과 졸업

● 공직

병무청 · 국토교통부 근무 — 행정 현장에서 사람과 삶을 관찰

● 문학의 시작

자작시 「충정」 국방일보 수록

● 전업 창작

공직 명예퇴직 후 창작에 전념 ·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집필

● 2010 『쓰나미』 출간

장편소설 · 좋은땅

● 2011 『동박새』 출간

장편소설 · 연인 M&B — 제주 -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특별기획소설

●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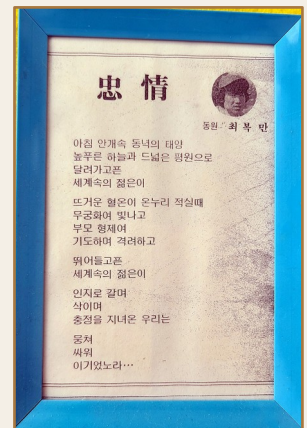
올레 e 북작가공모전 우수작

● 2018 『세초, 시린 바람을 씻다』 출간

장편소설 · 필리리 — 제 1 회 문학의봄소설상 당선작

● 현재

엠비씨문학연구소 소장 · 씨엠문학출판사 대표작가 / 소설집 『달그리안』 2026 년 9 월 출간 예정



국방일보 수록 자작시
「충정」 — 작가 소장 자료

수상 · 선정과 대표 저서

LITERARY PRIZE

제 1 회 문학의봄소설상 당선

WINNER

장편소설 『세초, 시린 바람을 씻다』 (2018)

SPECIAL PROJECT

제주 -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특별기획소설

장편소설 『동박새』 (2011)

CONTEST

올레 e 북작가공모전 우수작

전자책 작가 공모전 선정

PUBLIC SERVICE

국토교통부장관상

공직 재임 중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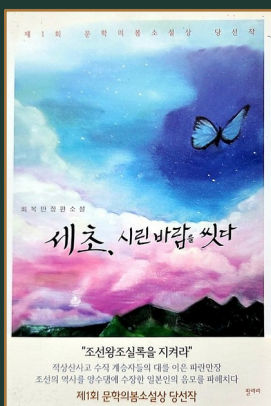
PUBLIC SERVICE

병무청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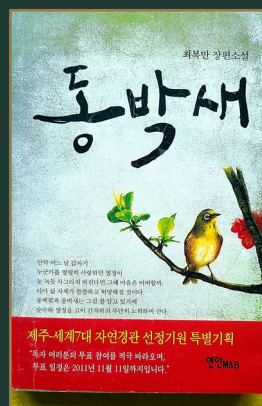
공직 재임 중 수상

대표 저서 3 선

SELECTED WORKS



세초, 시린 바람을 씻다
역사소설 · 2018



동박새
장편소설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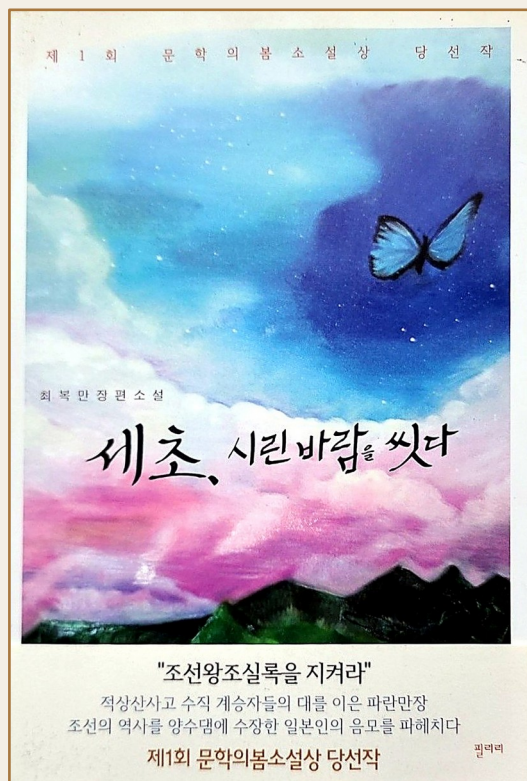
쓰나미
장편소설 · 2010

수상 · 선정 내역은 작가 제공 약력과 공개 도서 정보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초, 시린 바람을 쫓다』

제 1 회 문학의봄소설상 당선작

장편소설 · 필리리 · 2018. 4. 10 · 263 쪽 · ISBN 9791195943357



STORY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을 둘러싼 기억을 따라가며, 역사에 묻힌 음모와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의 삶을 되살리는 역사소설이다. 수몰된 공간과 사라진 흔적을 통해 ‘역사를 누가 기억하고 지키는가’를 묻는다.

작품은 거대한 역사 자체보다 그 안에서 삶을 견뎌낸 민초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질곡의 삶과 뒤틀린 사랑을 형상화하며, 과거의 기록이 오늘의 인간에게 남기는 책임과 상처를 짚는다.

KEYWORDS

- ◆ 적상산사고 · 조선왕조실록 · 기록의 수호
- ◆ 수몰과 망각 · 민초의 삶 · 역사적 책임
- ◆ 사랑과 배신 · 기억과 복원

BOOK INFO · 구매 · 도서 정보

알라딘 도서정보 ↗

aladin.co.kr · ItemId 141239755

교보문고 도서정보 ↗

product.kyobobook.co.kr · S000001969778

도서 정보는 출판사 · 온라인 서점 공개 정보 기준이며, 판매 여부는 판매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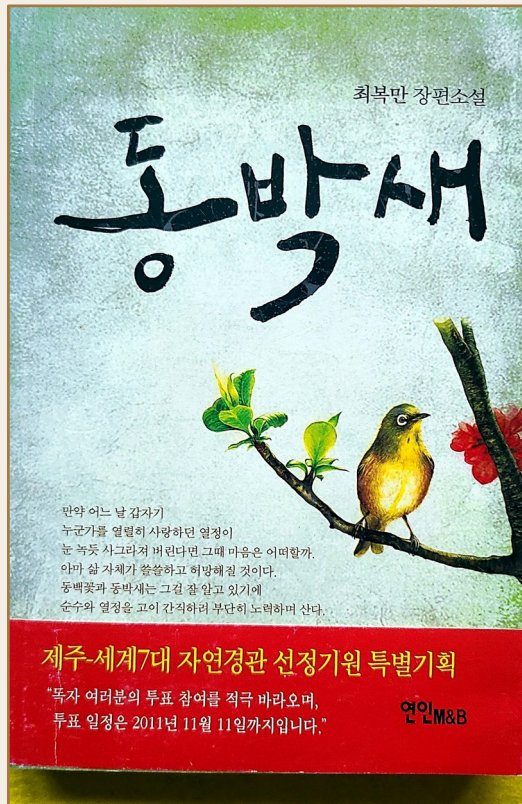
“역사를 씻어낸 것이 아니라, 시린 바람을 씻어낸 것이다.”

— 사이채 소설가, 당선작 서평에서

『동박새』

제주 -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특별기획소설

장편소설 · 연인 M&B · 2011. 8. 25 · ISBN 9788962531008



STORY

제주의 자연과 삶의 결을 배경으로, 동백꽃과 동박새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모티프로 사랑과 열정, 순수한 정서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제주와 우도의 올레길이 서사의 주요 공간으로 등장한다.

자연 풍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을 품는 또 하나의 존재로 기능한다. 동박새와 동백꽃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따뜻하게 비춘다.

KEYWORDS

- ◆ 제주 · 우도 올레길 · 섬의 풍경
- ◆ 동백꽃과 동박새 · 공생과 사랑
- ◆ 순수 · 열정 · 삶의 회복

BOOK INFO · 구매 · 도서 정보

교보문고 도서정보 ↗

product.kyobobook.co.kr · S000000969571

알라딘 전자책(eBook) ↗

aladin.co.kr · ItemId 12925946

도서 정보는 출판사 · 온라인 서점 공개 정보 기준이며, 판매 여부는 판매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백꽃과 동박새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피어나는 사랑과 순수의 이야기.”

『쓰나미』

전쟁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사랑의 파고

장편소설 · 좋은땅 · 2010. 2. 10 · ISBN 9788993368697



STORY

베트남전쟁 시절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상처가 오랜 세월 뒤 다시 밀려드는 과정을, 암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겹쳐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과거의 상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따라간다.

질병과 죽음, 고독과 운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끝내 놓지 못하는 기억과 사랑의 의미를 탐색한다. 제목처럼 삶에 밀려드는 감정의 파고를 통해 내면의 균열을 드러낸다.

KEYWORDS

- ◆ 베트남전쟁 · 첫사랑 · 오래된 기억
- ◆ 질병과 죽음 · 고독과 운명
- ◆ 상실의 귀환 · 인간 내면의 파고

BOOK INFO · 구매 · 도서 정보

YES24 도서정보 ↗

[yes24.com · goods 3696810](http://yes24.com/goods/3696810)

알라딘 도서정보 ↗

[aladin.co.kr · ItemId 6382126](http://aladin.co.kr/ItemId/6382126)

도서 정보는 출판사 · 온라인 서점 공개 정보 기준이며, 판매 여부는 판매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어떤 파도는 평생 밀려온다.”

현재 활동과 다음 이야기

NOW · 현재

엠비씨문학연구소 소장

NOW · 현재

씨엠문학출판사 대표작가

PUBLISHING

도서 출판 · 편집 · 감수

소설 · 회고록 · 자서전

출판등록 제 20-14 호

삶을 기록하려는 이들의 원고를
함께 다듬는다.

COMING · 2026. 9

소설집 『달그리안』

출간 예정 · 아홉 편의 이야기

“ 흘린 눈물은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
마음에 꽃씨로 스며들어 ,
언젠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얀 달빛으로 피어난다 .”

소설 · 판타지 · 동화 · 희곡 아홉 편 .
상처가 눈물이 되고 , 눈물이 극복의
힘이 되어 성장과 자립의 꽃을 맺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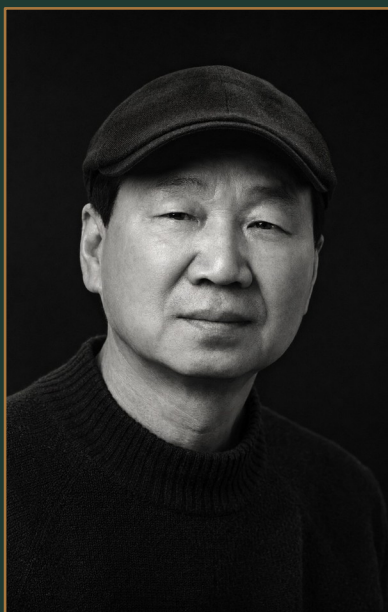
◆ 생활의 결 — 바둑 (제 15 회 안양시장배 시민바둑대회 3 위) 과 산책 , 독서로 일상의 리듬을 지키며 작품의 시선을 버린다 .



자연을 걷고 기록하는 일상 — 작가의 시선은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다 | 작가 제공 사진

“바람이 머문 자리 , 역사가 지나간 자리 ,
사람이 끝내 살아낸 자리를 씁니다 .”

최희는 병무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뒤 전업 창작의 길로 들어선 소설가다 .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역사와 자연 , 인간의 내면을 아우르는 작품을 쓰고 있다 .



최 희

CHOI HEE · KOREAN NOVELIST

집필 · 출판 거점

대전 동대전로 321 번길 · 서울 마포 잔다리로 7 길 · 제주 서귀포 서성일로 118

본 소개서는 작가 제공 약력 · 실물 자료와 온라인 서점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기록의 숲 · LITERARY FOREST · 2026. 7